

# 근대 이후 노인의 생활과 생활공간 변화에 대한 일상사적 고찰\*

## Daily Life Perspectives on Living Arrangements of the Elderly after the Modernization Era

경희대학교 주거환경전공  
교수 홍형옥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조교수 전남일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양세화  
가톨릭대학교  
연구교원 은난순

Kyunghee University  
*Professor* : Hong, Hyung-Oc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istance Professor* : Jun, Nam-Il  
University of Ulsan  
*Professor* : Yang, Sehwa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searcher* : Eun, Nan-Soon

###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산업화 사회 이후 (1960년대 이후)  |
| 2. 연구 방법 및 범위             | 3. 노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3의 연령기 |
| 1. 연구의 목적                 | Ⅲ 결론                      |
| Ⅱ 근대 이후 노인의 생활과 생활공간      | 참고문헌                      |
| 1. 근대화 시기(개항 이후 1950년대까지) |                           |

### <Abstract>

The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ily life and the living arrangements use of the elderly with literature review after the modernization period based on the daily life perspectives. The changes in the ideology, social system, and family system, which influenced the society and families, also affected the status of the elderly and their daily lives.

Corresponding Author: Eun,Nan-Soon, 43-1 Yeokgok 2-dong,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420-743, Korea, Tel: 82-2-2164-4836  
E-mail: eun117@hanmail.net

\*본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 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한국근현대 연구지원'(과제번호 2003-073-CS1001)으로 이루어졌음

Consequently, they had been facing conflicts, acceptance, and internal differentiatio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s in the daily lives of the elderly in different periods were as follows. The contents were written from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phenomenological, symbolic interaction, and Marxist. During the modernization period, the family system and the hierarchy within a family had been reformed. However, the elderly were still considered as the symbolic leader and the respected figure of the family. From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elderly teach the next generations and influence the family's lives. On the other hand, from a perspective of symbolic interactions, spatial adjustment behaviors toward the largest room between the elderly and the next generation were detected. The actual authority was given to the next generation. However, the elderly were still treated as the symbolic authority. Yet, as the society became more industrialized, conflicts aroused about the support of the elderly. Those, who were neglected from the family, even spent their daily time at the elderly center or the community center. The daily lives from the Marxist perspectives suggested that modernization caused the young generations, who were well-educated and had financial powers, to have initiatives. The role of the elderly was reduced and they became negligible people, who spend meaningless daily lives. The interest on the Third Ages is a new perspective on the elderly, who were neglected from the industrialized society. From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the Third Ages are the generations that seek and demand for new housing.

**주제어(Key Words):** 노인(Elderly), 생활공간(Living Arrangements), 일상생활(Daily Life), 일상사(Daily Life Perspectives)

## 1. 서 론

### 1. 연구의 목적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회 현상 중 하나는 가족구조의 변화였다. 가족구조의 변화는 거시적으로는 경제기반의 변화와 도시화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미시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의식과 상호관계의 변화, 가족 내 경제 활동 주체의 변화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와 가족 패러다임의 변화는 주거라는 물리적, 사회·심리적 환경을 통해 잘 나타난다.

19세기 외국 문물이 한국에 유입된 이래, 한국 주거건축은 외형적·공간적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의 영향력은 그대로 가족 구성원에게 전달되었다. 장유유서(長幼有序), 사친이효(事親以孝)의 가르침이 지배적이었던 조선사회에서 노인의 입지는 강려했다. 그러나 합리적 사고방식의 유입과 산업화 사회를 거치면서 가족 내 노인의 입지는 이전 사회와는 다르게 변모해 왔으며, 주거공간 내 노인의 일상생활과 생활공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노인의 일상생활과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의 경향은 현재와 미래의 노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sup>1)</sup>. 또한, 노인의 주거공간과 이를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노인주거를 둘러싼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역사적인 맥락 하에서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노인의 생활과 주거환경을 둘러싼 현재의 평가와 미래 예측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이후 현대까지 노인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것이 주거공간에 어떻게 상징적으로 투사되어 왔는지를 일상사

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화 시기 노인의 생활과 주거공간에 나타난 가족 내 상징적 상호작용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근대사회의 생활세계 식민화로 인한 노인 생활과 생활영역에 있어서의 일상사적 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산업화 사회 이후 노인이 겪는 생활상의 갈등과 사회체계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모습은 일상사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넷째, 제3의 연령기로의 노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활공간에 대한 현상학적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법을 채택하였다. 분석의 범위는 시기별 시대상과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구술자료, 고문헌, 잡지 등 대중매체, 연구논문 등의 사료이며, 그에 나타난 노인에 관한 내용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1) <표> 노인 연구의 시대별 주요 관심 주제

|   | 1970-74 | 1975-79 | 1980-84 | 1985-89 | 1990-95 |
|---|---------|---------|---------|---------|---------|
| 1 | 가족관계    | 사회보장사업  | 사회복지정책  | 건강 및 간호 | 사회복지정책  |
| 2 | 사회보장    | 사회복지정책  | 건강 및 간호 | 사회보장사업  | 노인주거    |
| 3 |         | 건강 및 간호 | 가족관계    | 생활단속    | 노인복지시설  |
| 4 |         | 가족관계    | 사회보장사업  |         | 생활단속    |
| 5 |         |         |         |         | 노인여가    |
| 6 |         |         |         |         | 고용,일    |

출처: 정무용, 정기남(1996), p.54

정무용·정기남(1996)의 노인주거 관련 연구경향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1970년대 후반 11편에 불과하던 논문이 1990년대 초반에는 123편으로 늘어났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노인연구의 시대별 주요 관심 주제를 볼 때,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시기는 개항기로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내용은 미시사적<sup>2)</sup> 시각의 하나인 일상사·일상생활의 관점(이하 일상사적 관점<sup>3)</sup>)에 의해 서술하되 홍형욱(2005)의 구분에 따라 현상학적 전통의 일상성, 상징적 상호작용론 전통의 일상성, 맑스주의적 전통의 일상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현상학적 전통의 일상성 관점에서는 주거생활과 관련된 노인의 경험과 기억, 현재와 과거의 장소에 대한 의미, 감정적 애착 등을 밝혀낼 수 있다. 이는 노인이 구축하는 주거에 대한 새로운 의미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 주거의 변화에 있어서 노인을 포함한 개인, 세계관, 사회구조의 변증법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는 가족의 내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미시적 사건들이 모여 결과적으로 가족적 또는 비가족적 역할들의 상호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밝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적 체제인 사회조직이 기능적인 단위로서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셋째, 맑스주의적 일상생활의 관점은 구조에 가려 보이지 않던 개인과 가족이 식민화되어 있는 상태로 사회변동의 주역으로 일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즉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 가고 있는 노인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물질만능주의의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데 유리하다.

## II. 근대 이후 노인의 생활과 생활공간

### 1. 근대화 시기(개항 이후 1950년대까지)

: 가족 내 상징적 주도권자

#### 1) 근대사회로의 진입, 여전히 대접받는 노인

근대화 과정에서, 거시적 차원의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사회적 요인으로 인구증가, 도시화, 빈번한 주거이동, 가구의 절대적 수적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형태의 내부공간을 갖는 주거형태가 지배적으로 점유하게 된 과정에는, 거주자의 선택 과정이 아니라 사회가 주거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친 특징이 있다(전남일, 2002). 미시적 차원에서는 가족 규모의 축소, 자녀세대의 가치관 변화,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역할 구도의 변화, 주거생활양식의 다양화 등을 거론할 수 있으며, 주거선택 및 내부공간에서의 생활행태가 거주자에 의해 여전히 지배되고 조정되는 점에 주목한다.

가부장적 대가족 제도 이념은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신분개념이 직업개념으로 옮겨가고, 상전과 하인에서 지주와 소작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존속되었다. 또한 6·25동란과 산업화로 인구이동이 심화되기까지 크게 변한 것이 없었는데, 특히 농촌과 같이 정체된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했다(홍형욱, 1992). 하지만 가족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하루하루 펼쳐지는 일상생활을 통해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일련의 변화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목격된다.

가장권이 절대시 되었던 시기에 가장의 권위는 단순히 '장유유서(長幼有序)'의 가르침에 의해 형성된 것만은 아니었다. 농경위주의 전근대적(前近代的)인 생산체계는 경험에 의해 터득하게 되는 삶의 지혜와 노후가 필요했다. 누적된 생활사(生活史)의 지혜는 그대로 생활의 밑천이며 배움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살아온 연장자는 자식들에게 있어 누구보다도 중요한 스승으로 대접받았다.

노인은 그가 속한 사회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대우를 받지만, 시몬느 드 보부아르<sup>4)</sup>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게 된 노인을 부양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그들의 경험과 지식은 집단에겐 유리하다. 이 사회는 노인들에게 상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참작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나이는 초자연적인 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생활에서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받게 되기” 때문에 대접받는 노인으로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활동이 왕성했던 시기를 거쳐 생물학적 쇠퇴기에 접어들지만, 이들의 사회적 역할은 노동의 주역에서 정신적, 경험적 지주로서 자리바꿈을 하게 된 것이다. 농경을 바탕으로 한 조선사회에서 학문과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던 대상은 연장자를 통해서였다. 따라서 노인이 담당하게 되는 정신적, 경험적 역할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회적 활동으로 인정받았다.

조선인의 '경노잔치'를 목격한 서구인에게 노인공경 풍습은 매우 신선하게 비춰졌다.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

2) 미시사(microhistory)란 '역사 속의 평범한 개인을 수동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행동하는 존재'로 파악하여, 인간사이의 관계와 행동양식을 중심에 놓고 파악하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위르겐 슐름볼 지/백승중·장현숙 편역, 2003). 한국 근·현대 주거의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의 하나인 미시사적 시각은 인간 삶의 미세한 부분까지 추적하여 주거와 인간 간의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미시사를 보는 7 가지 관점으로는 1. 실천적 비판이론 관점, 2. 미시사회학적 관점, 일상사·일상생활의 관점, 4. 담론관점, 5. 교환론적 관점, 6. 갈등론적 관점, 7. 생애과정 관점으로 나누어진다(홍형욱, 2005:79).

3) 일상사적 관점은 기능주의나 구조주의가 대개 체계의 재생산에 관심이 있는 것에 비해, 일상생활의 구조와 행위의 반복성에 관심을 갖는다.

4) 시몬느 드 보부아르 저, (1970): 71

선 사회에서의 노인은 대접받는 존재로서 사회적으로나 가족 내적으로 매우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이색적이고도 훌륭한 조선의 관습 중의 하나는 젊은 이들이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 지배층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일까? 매년 왕과 왕비는 90세 이상의 노인들을 궁궐로 초청하여 잔치를 베푼다. 나라의 관장 하에 그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부양 받으며 모든 면에서 행복을 누린다. 매년 이러한 목적으로 심사 없이 사전 경쟁을 통해 귀감이 되는 노인들을 선발한다. 이 때 뽑힌 사람들이 가난하다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갖가지 생필품과 돈을 하사 받는다. 그리고 때로 노인들은 거의 궁궐에 남겨나 죽을 때까지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족이나 고관의 집에 머무르기도 한다....그들은 지역 사회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고 근처 이웃에게는 거의 숭배의 대상이 되다시피 한다<sup>5)</sup>.

이처럼 지배층에 의해 실천되었던 노인공경 사상은 사회 전반의 모든 계층에게 영향력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일상 속에 드러나고 있는 ‘존경받는 노인’에 대한 인식은 개항 이후 오랜 세월동안 존속되었으며, 유교사회의 이념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상류층 가정의 노인들은 손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남아의 경우 5~6세가 되면 안채의 어머니 품에서 벗어나 사랑채로 나간다. 이때부터 글공부 등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뿐 아니라 할아버지의 훈도도 받게 된다. 여아의 경우 역시 어머니뿐 아니라 할머니로부터 생활예절 및 규방 교육을 받게 된다. 이렇듯 노인의 주거 내 일상생활은 가내 교육의 담당자로, 집안 대소사에 대한 조언자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화가 소개되고, 서구적 합리주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밀려왔던 격동기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노인의 사회적·가족내적 위상은 격하되지 않은 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림 1) 아이들을 가르치는 노인 (자료: Koreanity.com)

산업화 사회 이전까지 공동체 중심적인 대가족은 각 가정과 사회가 추구했던 이상이었다. 세대간의 질서는 여러 세대가 한 울타리 안에서 거처함으로써 전이될 수 있었다. 노인을 공경하는 모습은 다음 세대에게 기대하는 예비노인의 교육적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을 포함한 확대가족은 경제력이 있는 상류층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으나,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경우에 대가족의 비율은 실제 많지 않아 현실적인 상황이 이상을 뒷받침하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1903-1906년 한성부 호적자료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핵가족 52.7%, 확대가족 16.8%, 복합가족 21.6% 등<sup>6)</sup>으로 핵가족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대가족의 삶을 구현할 수 있는 계층은 경제적 뒷받침이 가능한 양반계층이었는데, 일제강점기 한성(서울)의 양반계층의 48.3%가 확대가족<sup>7)</sup>인데 반해 평민계층은 핵가족이 64.8%를 차지<sup>8)</sup>하여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서민계층의 경우 대가족이 모여 생활하는 데 있어 열악한 주거상황은 주거공간의 결함으로써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 가족형태로서의 확대가족은 산업화로 직장을 따라 가족들이 분산되기 전까지는 절대적인 가치로 존속되었다.

## 2) 노인과 자녀세대 간의 상징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주거조정

가족 내 노인의 입지와 일상공간은 공간의 점유 방식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상류 가족의 주거생활에서 보면, 방의 점유에 있어 가계계승<sup>9)</sup> 방법과 시기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전통사회 대표적 두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보면, <그림 2>의 경우 서부형의 특색을 담고 있는데<sup>10)</sup>, 노부모가 은거를 하지 않고 가계계승을 한다. 부모가 자기들의 생전에 살림을 넘기지 않고 사후에 가장권, 주부권이 장남, 장자부에게 계승되는 특색이 있다. 부모가 노쇠하여 출

6) 조은(1993):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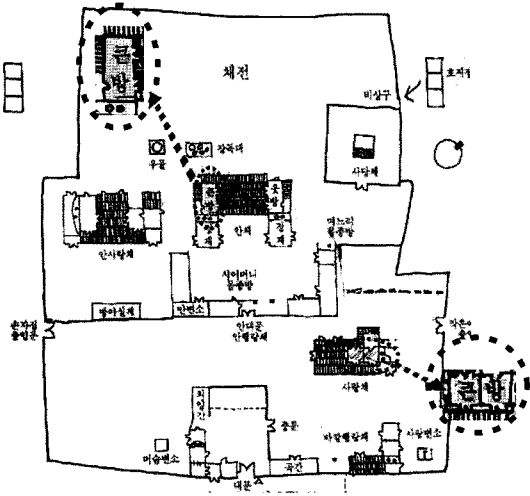
7) 가족은 부부와 그 미혼자녀가 가족구성원의 중심을 이루는데, 이와 같이 중핵적(中核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핵가족이라 하고 그 이외의 직계 또는 방계의 혈연자를 포함하는 가족을 확대가족이라 한다. 이는 가족규모를 가리키는 소가족과 대가족의 개념과는 차별화되는 가족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3세대로 구성된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일컬으며, 본 논문에서도 조부모를 포함한 가족을 확대가족이 아닌 대가족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8) 전남일(2003): 30

9) 우리나라 전통가족 가계계승 방법은 동남형(隱居型), 서부형(終身型), 제주형(獨立型), 함경도형(再歸型)으로 나눌 수 있다. 계승의 내용은 가족을 외부에 대표하는 대표권(代表權)과 가족을 지휘 감독하는 가독권(家督權), 가산을 관리하는 재산권(財産權),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제사권(祭祀權)이다(홍형욱, 1992).

10) 서부형은 전남 나주, 전남 정읍, 충남 논산 등지에서 목격되는데, <그림2>는 정읍 김씨집으로, 서부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음. 자료 출처와 내용은 홍형욱(1992):144

5) A.H. 새비지, (1895): 174-175



〈그림 2〉 서부형 가옥의 종신형 노인 거처 (전라북도 정읍군 산외면 오공리 김씨집, 자료: 홍형욱, 1992 :144)

입이 곤란하면 아들이 대표권(代表權), 가독권(家督權)을 대신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단지 대행일 따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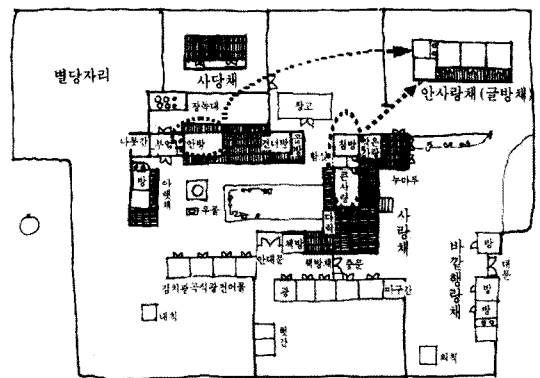
이러한 관계는 방의 점유 형태로도 드러나고 있다. 부모는 생전에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거쳐하던 사랑 큰방과 안방을 넘겨주지 않는다. 또한 종신형의 가계계승을 따르는 관행에 따라 부모생전에 방을 바꾸는 일도 없다. 3대를 이루었을 때, 중년의 며느리는 자기의 건넌방을 새 며느리에게 내어 주는데, 이 때 노년의 시어머니는 거쳐하던 방을 중년 며느리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안방에서 함께 지내기도 한다. 따라서 안방과 사랑 큰방이라는 공간의 상징적인 의미로 인해 기력이 쇠해진 노인은, 실질적인 권한이 아들 내외에게 있다 할지라도, 집안 내 상징적인 권위자로 생의 마지막까지 인정 받게 되는 것이다.

영광 연안(延安) 김씨댁의 안방을 중심으로 한 일상을 보면, 아랫방은 안노인이 윗방은 아이들(주로 손녀)이 사용했다. 안노인이 며느리에게 살림을 물려주는 일이 없어 안노인 생존시에는 안방물림을 할 수 없었다. 종손의 말에 의하면 조부모가 생존했을 당시(先孝 碩柱 公이 1981년 작고하였으며 증조부가 한말의 승지였으므로 적어도 해방 전까지는 그러했다고 본다) 안방 왼편에는 조부, 그 옆 바른편(內便)에는 조모가 각각 독상을 받았다고 한다. 모친은 그 안쪽 골방에서 독상을 받았으며, 부친은 윗방의 골방 앞에서 이 집에 동거 중이던 내종(內從)과 겸상을 받았다. 노부부간이나 부자간, 고부간에도 겸상을 하는 법은 없었다고 한다(홍형욱, 1992). “내가 어릴 때 밥 먹을 때는 같이 두레상에다 모두 앉아 먹었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할아버지 따로 드려. 할머니와 한 상을 안 드렸어. 할아버지 따로, 아들과 할머니하고 한상을 차려드리고, 며느리하고 시누이들

하고(김O규 할머니<sup>11)</sup>)” 먹는 모습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대가족 제도와 깨어지지 않은 전통적 식사예법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안방이 식당 기능을 하여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각기 독상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 내외지법(內外之法)이 준엄했던 시절보다는 상당히 변화된 모습이지만 조부모 살아계신 동안 독상을 받는 유습만은 지켜졌던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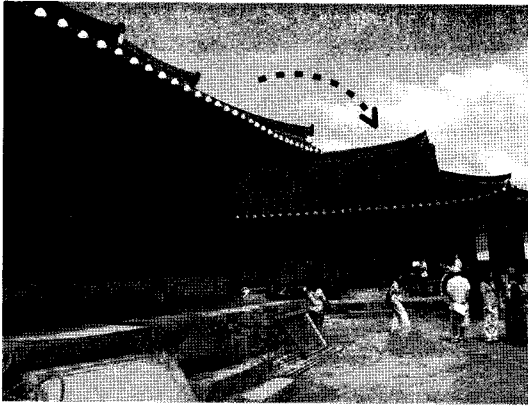
〈그림 3〉은 동남형 가계 계승방식<sup>12)</sup>을 택하고 있는 지역의 가옥으로, 계승방식의 특징은 가부장권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일시에 아들 부부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하동 정씨 종가의 경우도, 노부부가 일정 시기에 은퇴하고 안사랑채로 은거하기 위한 방바꾸기를 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2〉와는 달리 장자 부를 위한 건너 방과 장자를 위한 작은사랑의 크기나 장식이다소 허술함을 엿볼 수 있다. 노부부의 안사랑채로의 이동은 세대간에 보이는 적극적인 주거조정의 예로 나타난다. 그러나 4칸의 방세개가 부여된 안사랑채의 규모 역시 그리 작지 않음을 볼 때, 은퇴한 노인의 상징적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내보이고 있다. 이러한 삶의 질서는 근대화가 진행되던 시기에도 존속되었으며, 상류층에서는 여전히 대접받는 노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

경상북도 영천지방에는 ‘머릿방이 큰방 농 들어낸다’는 속담이 전해 내려온다. 큰방은 시어머니 방이고 머릿방은 며느리 방을 일컫는데, 이 지방에서는 나이 많은 위 세대가 물려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동남형 가구의 풍습처럼, 한 집에서 3대가 사는 경우 갓 혼인한 새 며느리는 머릿방으로 들



〈그림 3〉 동남형 가구의 은거형 노인 거처 (경남 함양군 지곡면 일두 정여창 고택, 자료: 홍형욱, 1992 :145)

11) 김O규 구술, 2006 구술자료집: 1933년생, 경북 함양군 개평  
 12) 동남형의 가장 중요한 특색은 부모가 은거를 하는 것인데, 가장으로서 사용하던 사랑방과 주부로서 사용하던 안방을 새 가장과 새 주부에게 양도하고, 노부모는 작은 방, 중요하지 않은 방으로 옮기거나 별채로 옮겨서 거주하였다. 〈그림 3〉의 자료는 동남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자료 출처와 내용은 홍형욱(1992): 145 참조



〈그림 4〉 안동 하회마을 북촌댁 중사랑채와 별채(오른쪽). 아들에게 권한을 넘겨준 후 노인은 별채로 옮겨 거주하였다(2005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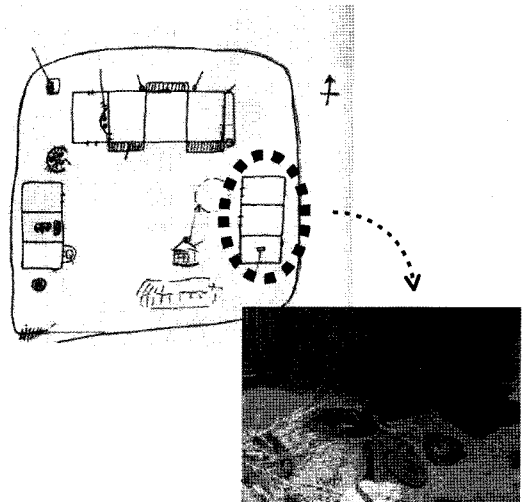
어가고, 이 방에서 기거하던 노인은 아래채의 행랑방이나 별당방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다만 집이 비좁아서 방이 따로 없을 때에는 머릿방에서 새 며느리와 노인이 함께 지내기도 하였다. 사랑채의 상노인도 행랑채로 나갔다<sup>13)</sup>.

노인의 사회적 역할 축소와 가정내 경제권 상실로 인해 노인입지의 약화가 두드러졌던 근대화 시기, 해방과 전쟁이라는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노인에 대한 예우는 각 가정에서 지속되었다. 또한 지방의 경우 여전히 남녀유별의 질서가 주거를 중심으로 지켜지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에 어린 시기를 보냈던 김O규 할머니는 “옛날 고령에 살 때, 우리 작은 어머니가 (시집)오셔서 작은 방에, 어머니는 큰방에 할머니하고 사셨지. 남자 분들은 전부 사랑에 사셨는데”라고 회상하면서, 여전히 방을 둘러싼 가족간 공간 조정과 전통적인 실(室)사용 양식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따신데는 할아버지 쓰시고, 큰아들은 할아버지하고 거처하였고”<sup>14)</sup>, 실(室) 내에서도 아랫목은 여전히 노인의 차지였으며, 아직까지는 뒷방 노인으로 취급받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윗목과 아랫목을 둘러싼 세대간 질서는 근대화가 급격히 진전되던 시기에도 여전히 남아 있던 전통생활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던 서민들의 주거에서도 노인의 거처는 상류층과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다. 농촌도 전통적 생활방식이 개항 이후 일제시기, 광복 후 까지도 그대로 존속되었음을 여러 기록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일본인에 의해 남

겨진 사진 기록<sup>15)</sup>에 의해, 1940년대 한 서민의 집에서도 경제권을 넘긴 후 거처를 옮긴 노부부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내외사상의 영향으로 경북 김씨의 집도 안채와 사랑채로 나누어져 건축되었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노부부와 아들부부가 각기 다른 채를 부부중심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안채는 왼쪽부터 부엌, 큰방, 대청, 작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들내외가 큰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경제권을 넘긴 노부부는 사랑채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김정한씨네 집은 안채, 바깥채 그리고 창고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주인부부와 그에 따른 가족이 거주하고, 사랑채에는 경제권을 넘긴 김씨의 노부모가 기거하고 있었다. 이 집의 사랑채는 방앗간, 외양간, 사랑방으로 짜여져 있다. 사랑채에 딸린 온돌 아궁이에 솔이 얹혀 있다.



〈그림 5〉 김정한씨 노부모가 기거하던 사랑채. 노부모 방 앞에 마련된 아궁이에 가마솥을 걸고 소먹이나 허드렛물을 끓였다(다카하시 노보루, 경상북도 대구시 동구 신기동, 1940. 11.24 촬영:134)

16)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전에는 외적 자연의 사회화 과정이 내적 자연의 사회화에 의해 통제되고 조절되었다. 그러던 것이 점차 생산력이 발전됨에 따라 외적자연의 사회화 과정이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다.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체계를 구성하는 주된 자원이 되고, 그 체계를 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규범구조였던 사회로부터 사회구성원들의 ‘정당화를 요하는’ 규범에 의해서만 움직여 지지 않는 사회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하버마스는 ‘생활 세계로부터 체계의 분리’로 부르고 있다. 체계의 확장은 생활세계를 축소, 왜소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회 구성원은 체계의 확장을 강제적이고 억압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체계의 확장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을 ‘체계에 의한 생활 세계의 식민화’라고 한다(하버마스, 1981).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일제가 추진한 일상생활의 재조직화 기획과 맞닿아 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생활개선이나 합리화 담론은 “일반 민중의 절대적 빈곤과 궁핍화를 전제로 한 것인 동시에, 담론의 효과로서 생활세계를 변화”시켰다. 문제는 ‘안온한 일상이 존재했다’는 발견이 아니라, 이런 일상을 이상향으로 여기게 만들었던 기획과 그 기획의 주도자가 누구였나 라는 점이다(정근식, 2005).

13) 김광언(2000): 6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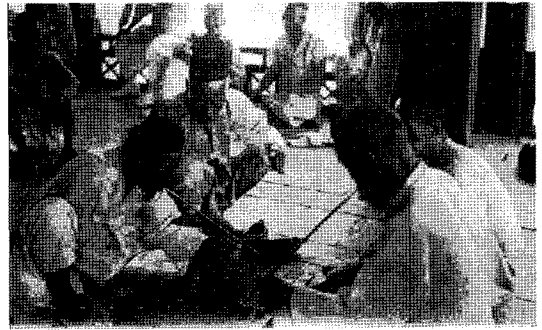
14) 김O규, 2006 구술자료집, 가톨릭대학교 한국 근현대 연구팀 : 1933년생, 경북 함양군 개평리

15) 다카하시 노보루는 1937년부터 1943년까지 한반도의 농촌과 농민의 모습을 남겼다. 「사진으로 보는 1940년대의 농촌 풍경」:134-136 참조

3) 공적 영역의 형성과 생활세계의 식민화<sup>16)</sup>로 인한 노인 생활과 영역의 변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구조는 점점 과밀해지고 택지부족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던 한성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당시 도시주택은 인동간격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데다가 뒤뜰도 갖추지 못한 형편이었다<sup>17)</sup>. 백지부족으로 인해 기존 한옥의 형식이 도시에 맞는 새로운 유형으로 변모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한옥의 외형과 공간적 구조의 재설정은 가족구성원의 공간점유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외적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농촌의 전통주택과 마을에서 볼 수 있었던 너른 마당과 담장 밖 채마밭, 집과 집을 연결해 주던 골목과 안길, 정자와 우물터와 같은 공동체적 생활시설을 도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마을의 공동체적 시설은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모임의 장소로서, 또 마을의 행사를 같이 치러내는 일종의 화합의 장이었다. 적어도 마을 입구의 당나무 밑이나 대문 밖만 나서면 인접해 있는 일가 친족의 집은 노인이 집을 나섰을 때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외부공간에 해당했다. 그러나 친족 중심의 마을 공동체는 해체되기 시작하고, 공동체적 시설



〈그림 8〉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내는 노인 (자료: Koreanity.com)

을 찾아보기 어려운 도시와 마당 좁은 집, 통로 기능만 남은 축소된 마을길, 그리고 농지의 부재는 노인의 활동반경을 더욱 축소시키는 물리적 환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노인은 집 앞 거리에 나와 동네사람들의 모습을 구경하기도 하고, 또 장터나 고궁을 휘휘 거닐기도 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냈다. 마땅히 할일이 없는 노인이 담뱃대를 물고 담벼락이나 행상 주변에 붙어 앉아 이것저것을 간섭하거나, 모여서 장기를 두거나, 집 주변에 오고가는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집밖 생활의 단면으로 흔히 목격되었다.

마을의 공동체적 영역이 축소된 반면, 확대된 영역도 있었다. 바로 근대적 공장과 같은 일터와 공적 교육의 장인 학교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공적 장소의 등장은 가족원의 생활반경과 생활양식을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전통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아동과 청소년의 무대가 근대적 공공영역의 발달로 인해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가내수공업이 근대적 기계공업으로 전환되면서 요구되었던 인력은 젊은 일꾼들이었다. 특히 경제력이 요구되었던 서민 여성들이 방직공업, 직조공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영역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여성 활동의 무대가 집에서 사회로 부분적으로 옮겨가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sup>18)</sup>. 일터로 나가버린 여성의 빈 자리는 마땅한 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에 의해 채워지게 되었다.

생활권의 변화는 도시에서 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점진적으로 이루어 졌다. 경북 대구시의 한 농촌 가족의 모습을 통해 변화된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9〉의 모자를 쓰고 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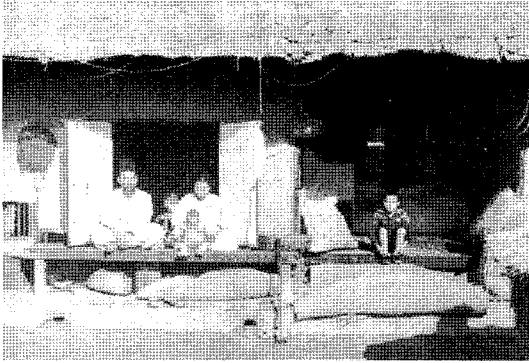
〈그림 6〉 길에서 잡화상을 하는 노인과 옆에서 말을 거드는 동네 노인(자료: Koreanity.com)



〈그림 7〉 도시 내 천변에 나와 있는 노인1876-1945. (자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2: 35)

18)가사고용인의 신분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이들에게 ‘공장’이라는 새로운 일터는 여성에게 사회노동을 통해 임금을 벌어들이는 역할을 부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11년 10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공장의 수는 252개였지만, 1930년에는 5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공장이 4,261개로 증가하였으며(최태호, 1996), 여기저기 생겨나는 공장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집을 떠나 일터로 향하도록 유도하였다. 여성들은 주로 수작업이 많이 소요되는 제사공장, 방직공장, 고무공장, 정미공장의 여공으로 취업하였다.

17)김순일(1982): 28-39



〈그림 9〉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 어린 남매를 돌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경북 대구시 동구 신기동 김정한 씨택(다카하시 노보루 1940. 11.24 촬영: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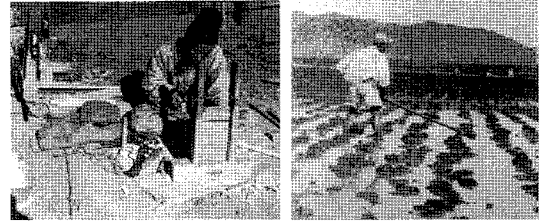
아 있는 사람은 집주인 김정한(1912년생)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그 당시 집주인인 아들 내외는 경상북도 농사시험장으로 맞벌이를 하러 나갔기 때문에, 손녀 용선과 손자 길용을 돌보는 일은 노부모의 몫이었다<sup>19)</sup>. 김씨 가정과 마찬가지로 자식부부가 모두 일터로 나간 후 노인에게 새로이 주어 진 몫은 손자녀를 돌보면서 낮 동안 집안을 돌보는 일이었다.

물론 전통사회에서도 글공부와 생활예절 등 손자녀 교육의 일부를 노부모가 담당하였다. 그러나 손자녀를 돌보는 일의 성격이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집안의 어른으로 교육을 일임해 왔지만, 근대화 사회에서는 집 밖의 일터로 나간 부부의 빈 영역을 지키면서 양육자가 없는 상황을 보완해 줄 대안자로 노인의 일거리가 부여된 셈이다. 노인은 빈둥빈둥 시간 보내며 밥만 축내는 상황에 대해 미안해하게 되었으며, 그나마 가사와 양육을 일부 떠안게 됨으로써 가족원으로서의 최소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한 경제적 활동 없이 집안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일을



〈그림 10,11〉 아이 보는 노인(좌), 농촌마을 길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우)(자료: Koreanity.com)



〈그림 12,13〉 (좌) 황해도 사리원 서선지장 ‘씨아를 수리하는 노인’ (1940년) (우) 평안북도 철안군 ‘쇠스랑으로 두둑을 고르고 있는 노인’ (다카하시 노보루 1940. 6.12 촬영:165)

하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경제적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노인들도 농촌에서는 상당수에 이르렀다. 농사지를 땅이 있거나 소작을 지을 수 있었던 노인은 더 이상 농사일을 지을 수 없을 때까지 노동을 했다. 또 마땅히 농사를 지을 땅을 구하지 못한 노인의 경우, 목화씨를 뽑아내는 기구인 ‘씨아’를 손질하거나, 기타 농기구 등을 수리하는 등의 잡일을 통해 농인의 생산성을 증명하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노인세대와 자녀 세대간의 생활양식 차이로 인해 겪는 갈등이 생겼다. 1930-40년대에 잡지를 통해 소개된 신가정은 구세대의 사고방식을 가진 노인과 신식 사고방식을 가진 자녀세대가 일상생활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1932년 「신동아」에 실린 ‘신가정내용공개’라는 다음 기사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현재 우리 가족은 남편과 저, 제집애들 세 명과 막내아들 한명,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도합 여덟 명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저희가 동소문동으로 이사간 후로 시부모님과과는 분가를 했지요. 시어머님은 저의 집을 못마땅하게 여기세요. 요즘 한창 유행하는 ‘문화주택’을 거금 천원을 들여 지긴 하였는데... 저는 우리 집의 환한 거실이 마음에 들어요. 미쓰코시 백화점에서 산 소파와 양탄자를 깔아보니 훨씬 안락하고 집안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이게 싫으신가 봐요. 하루는 장소가 좁아 3대째 물려 내려온 뒤주며 찬장을 대청에서 치워버렸는데, 이걸 보시고 매우 역정을 내셨어요. 뒤주에 있던 쌀은 부엌 한 칸에 정돈되어 있는데 어머님은 집안의 복을 함부로 내쳤다고 하시며 하루종일 방에서 나오시질 않으셨습니다<sup>20)</sup>.

주택을 선택하고, 가구를 고르며, 내부공간 꾸미는 일에서도 노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였다. 위 글의 노모는 며느리 행동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호통을 친다든지, 복종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이 아닌 ‘하루종

19) 다카하시노보루 사진, 고평민 외 엮음(2002): 135

20) 신동아, 1932



일 방안에서 나오지 않는' 방법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는 데 그치고 있다. 세대간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 전통사회에서는 집안어른으로서의 권위로 강하게 통제할 수 있었던 반면, 근대사회에서는 자녀세대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양상으로 변화해 갔다.

이러한 갈등은 주생활뿐 아니라 식생활, 의생활 등 전반적인 생활에서 나타난다. 다음 글에서 처럼, 서구적 합리성과 과학성을 교육받고 서구적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신식며느리는 반찬과 식단에 대해서도 노모와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노인세대와 자식세대간 갈등의 골은 매일 받는 밥상에서도 조금씩 깊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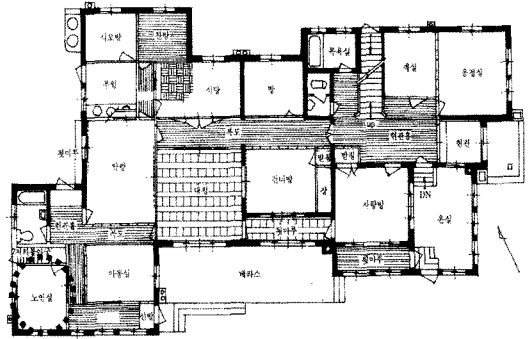
*아침 식사는 간편하게 먹는 편입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드리는 밑반찬이 예전보다 훨씬 부실해졌다고 자주 편찬을 주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학교 가사실습 때 배운 방식으로 조리를 합니다. 양모다는 질이라는 생각에 단백질과 칼슘을 보강하여 남편과 아이들 영양에 정성을 기울입니다.<sup>21)</sup>*

4) 근대 주거공간과 노인 생활공간(30-60년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식세대가 가정에서 주도권을 더욱 강력하게 행사하게 되고, 또 전통사회에서 미미한 존재로 주목받지 못하던 아동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는 등의 외적·내적 요인에 의해 근대가족은 이전과는 다른 가족관계로 재편되어 갔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비교해 볼 때, 대접받던 노인의 위상은 서서히 평가절하 되었다. 노인은 더 이상 가족문제를 논할 때 주역으로 등장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족관계의 변화는 근대주거공간의 계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30-40년대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몇몇 평면도에서는 '노인실'이라고 하는 독립된 노인 공간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개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건축가들이 방의 용도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고자 한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다. 개량한옥 평면도 상 노인실의 특징은 집안의 한쪽으로 물러나 있기는 하지만, 편리성을 고려하여 변소를 가까이 두었다는 점이다. 아래 두 평면은 아동실과 노인실을 인접하게 배치하고 변소를 노인실 옆에 붙여 동선을 최소화한 점을 볼 수 있다.

전국주택설계현상(1959)당선작 중 도시형 국민주택 설계의 경우, 설계의 조건으로 가족 5명, 대지 60평, 건평 15평, 서울교의 지역 등을 제시하였다. 이 부분에서 1등과 2등을 차지한 두 작품의 경우 온돌방이나 침실을 두개만 두어 부부와 자녀 중심의 핵가족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반면 3등을 한 작품을 보면(〈그림 15〉 참조), 비슷한 크기의 온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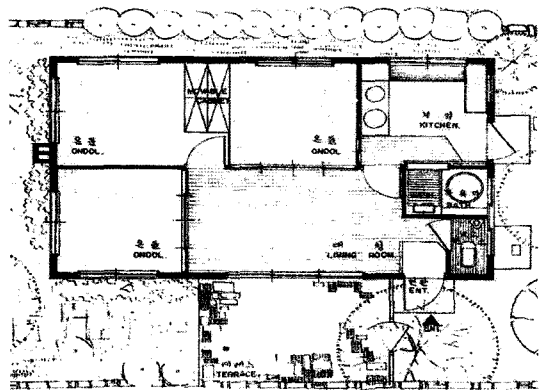


(그림 14) 장기인 개량주택 평면도(1940년 시안) (자료:건축사 142호, 1981.1 :24)

방을 3개 두어서 5인 이상의 확대가족이 불편함 없이 생활하도록 고안되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설계자에 의하면,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족을 배려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때에도 각 세대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배려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방을 각각 독립되게 하여 노인이 계절 때나 낮선 외래객 접대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계획한 것이 주택 평면구성의 특징”이라고 덧붙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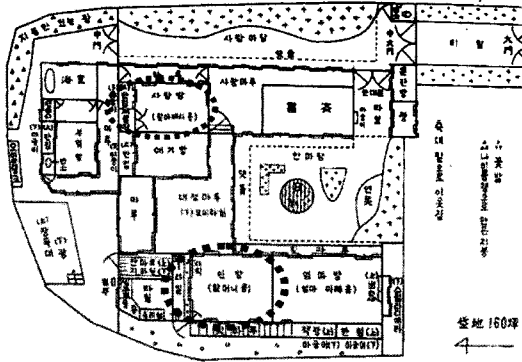
건축가에 의한 작품 주택에서 뿐 아니라, 상류계층의 주택에서는 여전히 독립된 노인의 공간이 할애되고 있었으며, 전통사회의 이념도 상당히 존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여성 잡지에 실린 상류계층 확대가족의 한옥을 보면, 노인의 경우 공간사용에서 여전히 내외사상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엄마방이라고 호칭된 곳은 아들부부의 방으로 부부가 하나의 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전통적 유습 그대로 각각 방을 나누어 지쳐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방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던 내외 사상은 노인들에 의해서 명백히 유지되었지만, 그 속에는 실생활과 체면이라는 상반된 의식 구조가 갈등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



(그림 15) 강익식·김동명·허규용·백광윤, 도시형 국민주택 3등작 (자료: 제2회 전국주택설계현상당선작품집, 1959. 보건사회부:61)

21) 신동아, 1932



(그림 16) 노인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내외사당  
(자료: 여원, 1964. 11)

라북도 전주시에 어떤 노인은 “나는 방에서 혼자 살아요. 마누라하고도 판 방을 쓰지요. 늙은이들끼리 등어리도 굽어 줘서 재미있게 지낼래도 자식들이 숭을 볼까 봐서 한 십 년 넘게 판 방을 써요”<sup>22)</sup>하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전통사회에서 교육 받은 상류계층 노인은 신식 사고방식을 가진 아들내외처럼 드러내 놓고 부부간에 방을 합치는 주거조정 행위를 실행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세대간의 삶의 질서는 근대화로 인한 서양 문물의 유입 이후에도 오랜 기간 전해져 내려왔다. 주거의 외형적 유형과 공간배치 방식이 서구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핵가족의 삶을 추구하는 자식세대들과 갈등이 표면화되기 전까지는 노인은 집의 가장 넓고 좋은 남향방에서 거처하도록 배려됨으로써,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이 주거공간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어 왔다.



(그림 17) 상류층의 노인과 노부모방(자료: 여원 1966.2: 362)

## 2. 산업화 사회 이후 (1960년대 이후)

: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주변화

### 1) 노인부양과 공간사용에 대한 가족간의 갈등

삶의 기반이 농경에서 산업으로 옮겨가면서,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유지되었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되고 자식들의 분가와 도시로의 이주가 빈번해 지면서, 가족간의 질서와 위계는 도전을 받게 되었다. 해방 후 신식 교육을 비롯한 근대문화이 본격적으로 밀려들어오게 되면서 ‘경제력’이 새로운 질서 체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국민교육의 보급은 지식 면에서 부모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고, 농업이외의 산업이 발달하고 분업화되었기 때문에, 농업밖에 모르는 부모가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자식들을 가르칠 실력이 없어지고 말았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경험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동성을 가진 젊은 사람의 신지식과 경험에 대해 노인은 시시비비를 가할 수 없게 되었다.

해방과 전쟁은 사회적 질서와 가족 내 관계망을 와해시키고 재편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전쟁 후 혼란기의 상황에 대해 당시 잡지에서는 사상과 경제의 변화가 미시적으로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장권 내지 부모의 권위를 정신적인 면에서 지지해 주던 유교의 효도설(孝道說)은 하나의 낡은 사상으로 공인되어 그에 대리하여 민주주의 사상이 대두하고 민주교육을 받은 젊은 사람들이 노부모의 가정교육에 불만을 느낄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방후 농지분배(農地分配)와 그 외의 산업에 있어서의 불평기는 자제(子息)를 경제적으로 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제에 신세를 지는 형편에 있는 가정에 있어서 자제의 발언권이 부모의 그것보다 더 커졌다. 거기에 가장권이 설 수 없는 것이다. 경제적 빈곤은 부부 친자의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sup>23)</sup>.

근대화과정에서 전통적 가족문화 중 해체되거나 약화된 것은 다산주의의 가치, 대가족 및 확대가족 지양이었다. 근대 사회는 가족이 더 이상 생산단위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족의 전통적 요소를 지속시킬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노동력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소가족화 내지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되는 핵가족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성향은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심화되었다<sup>24)</sup>. 핵가족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단독 가구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하는 점 역시 변화 양상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다음 표에서처럼, 7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3대가 함께 살

22) 김광연(2000)

23) 여원, 1956.12: 57

있던 가구가 20년간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노인단독 가구는 7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노인과 자식간의 거주지 분리는 세대간의 문화와 삶의 방식 공유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가족형태의 변화는 노부모세대를 주변세대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렇다고 노인 대부분이 자식세대와 독립해서 품격 있는 생활을 영위할 경제력을 갖춘 것도 아니었으며, 의탁할 사회복지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가족부양의 가족책임론이 산업화과정에서 그대로 강요되었기 때문에, ‘효’라는 이름 하의 노인부양은 세대간 갈등의 쟁점이 되었다.

노인이 자녀와 동거한다는 것은 과거와 같이 자녀의 자발적 효에 기초해 있던 시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노부모 입장에서 부모부양은 아들, 며느리가 져야 하는 것으로, 자식의 입장에서 노부모부양은 아들, 특히 큰 아들 부부가 져야한다 라는 암묵적인 대안이 가족간, 형제간에 팽배해져 있었다. 별다른 대안이 없어 아들부부가 노부모와 동거하거나 별거하면서 부양한다 하더라도 부모세대는 그야말로 얹혀 지내는 처지가 된 셈이다. 부양하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면, 핵가족 사회 속에 노부모세대는 반갑지 않은 구성원이다. 며느리에게 시부모 부양은 일방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노부모세대나 자식세대는 서로 불편한 관계 속에서 가족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다음 글은 노인 부양을 둘러싼 가족간의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노인의 동거 형태 변화추이

|          | 1975  | 1981  | 1990  | 1994  | 1998  |
|----------|-------|-------|-------|-------|-------|
| 3세대 동거가구 | 78.2  | 69.1  | 44.0  | 39.1  | 34.5  |
| 미혼자녀가구   | 6.8   | 11.2  | 29.4  | 14.7  | 6.3   |
| 노인단독가구   | 7.0   | 19.7  | 23.8  | 41.0  | 53.1  |
| 기타       | 8.0   | -     | 2.8   | 5.2   | 6.1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 박재간(2002)

24) <표> 우리나라 세대구성의 변화 (단위: %)

| 연도   | 1965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
| 세대구성 |       |       |       |       |       |       |       |       |
| 핵가족  | 66.6  | 71.5  | 70.5  | 72.9  | 75.3  | 76.0  | 79.0  | 80.0  |
| 확대가족 | 21.4  | 21.9  | 14.7  | 14.1  | 13.7  | 12.5  | 16.3  | 13.6  |
| 기타   | 12.0  | 6.6   | 14.8  | 13.0  | 11.0  | 11.5  | 4.7   | 6.4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통계청 통계연보 (2000)

1930년대 4인 이하의 핵가족 비율은 전체 가구의 35.53%에 불과하던 것이 1960에는 64.0%, 1970년에는 70%대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직계형 가족, 즉 대가족은 1960년 26.9%, 1970년에는 21.9%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도 1960년 5.56명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1970년 5.24명, 1975년에는 5.04명으로 계속 줄었다.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는 “그럼 나더러 이 나이에 시집살이를 하란 말이예요”. 그때 노인은 황당 간에 쫓겨듯 얼른 방으로 들어왔지만, 뒷일이야 어찌되든 마음만은 아들이 다시 호통을 쳐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으이구 지겨워, 인제까지 이리고 살아야 하는지” 하는 며느리의 거침없는 짜증뿐이었다<sup>25)</sup>.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택유형의 등장은 중산층 가족의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불합리한 구조로, 노인의 일상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 초저녁 잠이 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생활습관이 몸에 밴 노인과 밤늦게 까지 잠을 자지 않는 손자녀 간의 활동시간의 차이로 인해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게 되었다. 또한 마당 없이 높이 들어올려진 아파트는 노인이 적응하기에 쉽지 않은 주택이었다.

누님의 아파트로 올라오신 박씨의 아버지.... 아버지가 앓기 시작한 병은 소화불량과 수면장애... 초저녁에 잠들어 새벽에 일어나는 시골에서의 수면습관은 자정이 넘도록 TV를 켜놓고 오디오를 틀어놓는 서울문화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26)</sup>

서구식의 생활양식은 화장실을 침실 공간 가까이로 끌어들이게 되고, 이러한 공간계획의 변화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족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 화장실이 1개밖에 없는 소형아파트에서 거주하는 확대가족은 화장실 사용을 두고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아파트에 함께 사는 시부모와 며느리 정신질환 늘고 있다’는 글에 의하면, 화장실의 변기 형태의 변화로 인해 겪는 노인들의 고통을 읽을 수 있다.

아침 산책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 윤노인은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살던 단독주택을 팔고 13평짜리 주공아파트로 옮겨 살고 있었다. 그런데 아침마다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이 출근하는 아들과 학교 가는 손자 녀석들이 번갈아 세면하느라 빌새가 없어 급기야 어느 날은 참다못해 바지에 ‘행사’를 하고 말았다는 것. 노인은 그날 이후 ‘똥바지’ 때문에 걱정하느라 병이 났고 용변 걱정엔 식사량도 줄었다는 것이다. 결국 진동하는 똥배 때문에 며느리에게 들킴으로써 망신을 당하고 똥바지 사건은 결말이 났는데 그 후로부터 노인은 새벽마다 용변해결을 위해 산책길을 나서게 됐다고 털어놓았다...<sup>27)</sup>

비좁은 도시 주택에서 노인을 모시는 것은 쉽지 않다. 노인과 아이들이 방을 같이 쓰거나 혹은 아이들이 부모 방에 와서 지내야 하는 공간사용 문제를 두고도 심리적인 갈등은 더

25) 이순원(2004): 87

26) 여성동아, 1987.8: 207

27) 여성동아, 1987.8: 207

육 심화되었다. 75년 조사에 의하면, 서울 시내에서는 방 하나에 평균 3명이 살고 있었고, 심한 경우 10명 이상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sup>28)</sup>. 80년대까지 이어진 이러한 극심한 주거 내 과밀 상태에서 서민가족의 생활은 힘겨웠으며, 노인의 경우 자식들의 눈치를 피해 낮 동안은 집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돌 수밖에 없었다.

2) 밖으로 도는 노인, 그들만의 공간

가족관계의 변화 속에서 노년층들은 집안에만 머물기가 여러모로 불편하게 되었다. 집집마다 할일이 없어진 노인들은 지루하고 눈치 보이는 시간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만의 공간, 즉 마을 회관과 경로당에 따로 모이게 되었다. 신도시 아파트에서 아들가족과 동거하는 70대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하루를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이제 집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 며느리가 일 나가니까 내가 살림도 해주고 아이들 학교 가는 것도 봐주고... 요즘에는 하루 종일 영감과 둘이서 집에 있을 뿐이라우. 그래도 나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할머니며 며느리가 없는 낮에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이야기도 하고 맛난 음식도 해 먹고 가까운 백화점에 쇼핑도 가고.....<sup>29)</sup>

30년 동안 네 번째 경로당에서 회장으로 봉사해 오고 있는 85세의 한 경로당 회장의 다음 말을 통해, 노인들이 경로당을 통해 주위의 무관심 속에 즐거운 마을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활동력이 미약한 동네 노인들이 낮 동안 집안에서 혼자 지내지 않도록 놀러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점심을 제공하니까 웬만하면 모두 매일 나와. 토요일, 일요일도.... 일주일에 두 번씩 운동 삼아 주변 청소를 하는데 건강에 좋고, 동네를 깨끗하게 해서 좋고, 노인들이 쓰레기 줍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교육효과도 있지.. 노래도 듣고, 얘기도 나누고, 일주일에 두 번은 오락을 해. 손뼉을 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돼<sup>30)</sup>.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 살고 있는 노인도 마땅한 일거리 없이 하루를 지루하게 보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천시 나래 2리<sup>31)</sup>에 사는 노인들이 가장 즐기는 놀이 겸 도박은 화투이다. 노인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또는 가정집에서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화투를 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화투를 치는 목적을 “큰 소일거리가 없기 때문”이

라고 하며, 특히 “치매에 좋다”는 이유를 든다. 또한 점심 때가 되면 마을 노인들이 매일 회관으로 출근한다. 이유는 주방용기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부엌에서 식사당번이 마련해 온 점심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매일 회관을 찾는 할아버지는 다 음과 같이 심경을 털어놓았다.

겨울동안 마을회관은 농한기를 지내는 마을 노인들의 사랑방이 될 뿐 아니라 할멈이나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점심까지 챙겨먹는 안방 늙은이 신세를 면하게 해준다. 가끔 노래방 기계를 통해 흘러간 옛노래를 즐기기도 한다<sup>32)</sup>.

이 동네 000할머니의 삶은 무척 외롭다. 할머니는 늘 혼자 집에 있거나, 집 앞 텃밭 일을 하기도 한다. 지금도 문중 땅을 도지로 붙이고 있어 농사철에는 아들이 주말 정도에 내려와서 도와준다. 그러나 농한기인 겨울철이 되면 할머니는 할 일이 없다. “심심해서 못 살겠어. 일거리가 없어서”라는 것이 할머니의 뉘그러였다. 구뫼한 삶은 아직도 스스로 생계비를 벌어야 한다. 이 때문에 할머니는 어디든 일만 있으면 품을 팔러 가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칠십 넘은 노인네를 고용해 줄 곳은 없다고 푸념을 한다. 할머니는 TV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뽕짝 가락이나 전국노래자랑을 무척 좋아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서 음악을 들으며 보내고 있다.

3. 노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3의 연령기

노인들이 스스로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인식하고 노후를 제3연령기(the third age)<sup>33)</sup>라 하며, 스스로 노후를 계획하고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sup>34)</sup>. 즉 제3의 연령기는 노후를 경제력이 있고 선택권이 있는 긍정적 기간으로



<그림 18> 마을 회관에 모여 점심식사를 하는 노인들 (자료: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483)

28) 경향신문, 1975.7.12

29) 홍형욱·이경희·최정신·김대년·조재순·권오정(2004): 81

30) 홍형욱 외 5인(2004): 314

31) 이천시지편찬위원회(2001): 482

32) 이천시지편찬위원회(2001) : 483

33) 시기적으로는 은퇴기 이후의 연령대를 가리킴



(그림 19) 혼자서 TV보며 하루를 보내는 할머니  
(자료: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516)



(그림 20)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자료: 조선일보 2003.10.17).

보려는 것이다. 제3의 연령기에 놓인 이들은 주름계거크림을 사용하고, 자녀로부터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여가 생활을 즐기며, 충분한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해 두고, 주거공간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고자 한다.

노인들은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가. 현재 노인들은 전체 성인에 비해 하루 24시간 가운데 개인유지활동(수면, 식사, 간식)으로 약 11시간 19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노인의 하루 활동 가운데 개인유지 활동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이 여가활동(교제, 종교, 레저, 대중매체, 휴식)인데, 하루 평균 7시간 2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성인에 비해 여가활동과 개인유지활동에 약 3시간 30분 이상을 더 사용하는 반면, 수입노동활동과 참여 및 봉사활동, 이동 등에는 그 시간만큼 덜 쓰고 있었다. (통계청, 2001). 결국 제3의 연령기인 노후에는 수입을 얻기 위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소득이 감소하며, 사회적 역할과 접촉도 줄어들는 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제3의 연령기를 고독이나 고립, 무료함에서 벗어나 즐겁고 보람 있게 지내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늘어난 여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노인교실이나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노후여가생활시설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게 되었다. 실제 중산층 50대 예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sup>35)</sup>에 의하면, 노후 여가생활시설 이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살고 싶은 주택유형에 대해, 30대~60대의 잠재수요층의 태도와 선호경향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sup>36)</sup>, 중간소

득이하 계층은 ‘노인공동생활주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자식에게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노후생활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은 절실했다. 그들은 주거를 통해 식사와 여가·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길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잠재 수요도 높은 것<sup>37)</sup>으로 나타났다. 예비 노인들의 노후생활과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주거에 대한 요구의 발생은 더 이상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삶을 살겠다는 의식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미 서울의 일산과 분당지역은 새롭고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일산의 호수공원 옆의 노인종합복지관은 하루 종일 건강한 노인들의 활기로 넘쳐나고 있는데, 서울의 다른 지역의 65세 이상 비율이 4.5%인데 비해 6.8%라는 높은 거주비율을 보임으로써 제 3의 연령기를 위한 지원이 선호되고 있음을 나타나고 있다<sup>38)</sup>.

또한 도시에 살다 다시 경북의 농촌 고가(古家)로 돌아와 살고 있는 김 할머니의 말에서 변화된 노인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요새 실버타운 있잖아. 그렇게 생각해. 저거(자식)는 저거 생활이 있으니까.. 실버타운에 가서 살면 좋잖아..*<sup>39)</sup>

2001년 6월 실버타운에 입주한 K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 오전 아쿠아로빅과 스트레칭을 하고 오후시간은 대부분 문화센터에서 보낸다. 월·수요일에는 노래교실에 나가고 화요일에는 장구를 치러, 목요일에는 민요를 부르러 간다. 주말엔 문화센터 내에서 마련된 영상 실에 들러 추억의 영화를 한편씩 챙겨보는 것도 낙이라고 한다. 저녁 시간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노을을 보며 산책

34) 은퇴 후의 삶을 노년기, 노령기라고 부는 것을 거부하며 노후의 삶을 새롭게 계획하려는 움직임을 반연령차별주의(anti-agesim)라고 한다. 과거 연령차별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노인은 부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양로원, 요양원과 같은 시설주거에 수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공공자금의 효율적 지출에 대해, 전통적인 연령차별주의와는 다르게 노인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홍형옥, 2001)

35) 홍형옥 외 5인(2004): 325-326.

36) 홍형옥(2001)

37) 홍형옥, 지은영(2004)

38) 홍형옥 외 5인(2004)

39) 김O규 구술, 2006 구술자료집, 가톨릭대학교 한국 근현대 연구팀: 1933년생, 경북 함양군 개평리,

하는 것도 할머니가 좋아하는 일과 중 하나라고 하였다<sup>40)</sup>

*난 여기 들어올 때만 해도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퇴행성관절염이 심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잘 걸어요.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가능한 일이지<sup>41)</sup>.*

하지만 사회적 지원체계와 노인을 위해 배려된 주거는 충분한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다. 노인도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주거환경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노인이 자신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기서 자신을 우울증 속에서 벗어나게 해 줄 그 무엇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설사 노인이 자기 주위의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목표의 부재는 그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sup>42)</sup>”는 말이 전하는 의미로 볼 때 실버타운을 포함한 노인을 위해 계획되는 주택은 노인의 새로운 삶이 역동적일 수 있도록 섬세하게 배려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 II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개항이후 현대까지 노인의 일상생활과 공간 사용에 대한 특성을 일상사적 관점을 통해 살펴보았다. 사회와 가족에게 영향을 주었던 이념과 사회시스템의 변화, 가족체계의 변화는 노인의 지위와 일상생활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으며, 그로 인해 갈등과 수용, 내적 분화의 양상을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각 시기별 노인의 일상사에 대한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개항 전후 노인을 포함한 가족원은 극심한 사회적, 이념적, 경제적 변화 속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가족제도의 변화와 가족 내 권력구조의 재편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가족 내 상징적 주도권자 이자 대접받는 존재로 남아 있었다.

현상학적 측면에서 볼 때, 노인은 다음세대에게 가르침을 주고 집안 대소사를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였으며,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노인을 공경하는 풍습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었으며, 주거공간에서도 큰방을 점유하고, 독상을 받으며, 손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상의 현상을 통해 전통사회에서의 노인 위상이 그대로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징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큰방을 둘러싼 공간조정 행위는 노인과 다음 세대 간에 이어진 상호작용 행태가 공간으로 조절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정시기 이후 자식세대에게 물려주었던 행위는 자식에 대한 실질적 권한의 양도로 해석된다. 또한 생을 마칠 때까지 큰방을 점유하는 경우, 실질적 권한은 자식에게 있으나 상징적 권위자로서 노인의 가족 내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족 내 상징적 상호작용 질서는 방 사용을 둘러싼 공간조정뿐 아니라 윗목과 아랫목의 사용에 있어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맑스주의적 일상생활의 관점을 통해 보면, 근대화가 추진되면서 생산체계가 변화하고 공적영역이 형성되며, 학교교육을 통해 신지식을 가진 젊은 세대의 주도권이 가시화되면서, 노인의 역할은 위축되고 무의미한 일상을 보내는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였다. 생활세계의 식민화로 인해, 경제력이 가족 내 위상을 재결정하게 되고, 신문물과 신지식에 어두운 노인들은 점점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다. 과밀화된 도시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주택들이 등장하고, 공동체적 역할을 상실한 근대 주거지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차단하는 배경이 되었다. 새로이 주목받게 된 젊은 세대와는 달리 노인은 확대되는 공공 영역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노동시장으로의 접근도 어려워지는 등 주거 밖 생활과의 단절은 더욱 심화되었다.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일부 노인들을 중심으로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을 따로 두는 현상을 통해, 내외사상의 풍습이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통적 생활방식과 새로운 사고방식 사이에서 갈등하는 노인의 심경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부양을 둘러싼 가족 내 갈등 현상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찾는 노인의 일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 노인의 공적공간의 탄생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노인의 위상을 대변하고 있다.

제3의 연령기에 대한 관심은 산업화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노인에게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여가를 즐기며, 자식들과는 독립된 주거지를 선택하는 새로운 세대의 탄생을 의미한다. 제3의 연령기는 새로운 주거에 대해 탐색하고 요구하는 세대이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원치 않으며, 다른 노인들과 어울려 봉사활동과 취미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일상생활을 설계해가는 세대로서, 노인 산업 등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새로운 세대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세 가지 관점으로 통해 본 노인이 일상생활과 생활공간의 변화는 개화기를 거쳐 일제시기의 서구문물의 도입과 산업화로 인해 서서히 변화해 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체계의 변화와 가족 역할의 변화, 경제구조와 노동력 변화 등은

40)주택저널(2002, 10)

41)K할머니, 2002 구술, 홍형옥 외 5인(2004) 재인용

42)시몬느 드 보부아르 저(1970)

노인의 사회적, 가족 내 지위의 변화를 유도하였으며,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시켰다. 그러나 현대의 노인은 노령화 사회의 주체로서 그들만의 생활과 공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고문헌

가톨릭대학교 한국 근현대 연구팀(2006). 2006 구술자료집. 건축사(1981.1) 142호.  
 경향신문, 1975. 7. 12.  
 김광연(2000). 우리생활 100년 집. 서울: 현암사.  
 김순일(1982). 개화기의 주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6(106), 28-39.  
 다카하시 노보루 사진. 고평민·도쿠나가 미츠토시·다카하시 코우시로 엮음(2002). 사진으로 보는 1940년대의 농촌 풍경. 서울: 대원사.  
 박재간(2002). 노인전문주거시설의 개발전략. 서울: 아시아미 디어리서치.  
 보건사회부(1959). 제2회 전국주택설계현상 당선작품집.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2002). 개항 이후 서울의 근대화와 그 시련(1876-1910), 서울특별시.  
 시몬느 드 보부아르 저(1970), 홍상희 외 역(1994). 노년. 서울: 책세상.  
 신동아(1932). 신가정내용공개.  
 여성동아 (1987.8). 아파트에 함께 사는 시부모와 며느리, 정 신질환 늘고 있다.  
 여원, 1956. 12월호, 1964. 11월호, 1966. 2월호.  
 위르겐 슐룸볼 저/백승중·장현숙 편역(2003). 미시사의 즐거움. 서울: 돌베개.  
 이순원(2004). 거미의 집, 소설, 노년을 말하다. 서울: 황금가지.  
 이천시지편찬위원회(2001). 개인생활과 마을. 이천: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정무용, 정기남(1996). 노인주거 관련 연구경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11), 51-61.  
 전남일(2002). 한국 주거내부공간의 근대화요소에 관한 연구-주거사회학적, 문화인류학적, 페미니즘적, 공간구조적 관점에서 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61-73.  
 전남일(2003). 문명화이론을 통해 본 개화기의 주거와 그 근대성의 재조명.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25-40.  
 정근식(2005). 시간체제와 식민지적 근대성. 문화과학사. 문화과학 41, 146-169.  
 조선일보 2003.10.17.  
 조은(1993). 한말 서울의 가족구조. 한국 사회사연구회 편. 한국 근현대가족의 재조명. 서울: 문화과 지성사. 11-41.  
 주택저널(2002. 10). '실버타운 특집' 기사.  
 최태호(1996). 근대한국경제사 연구. 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  
 통계청 통계연보(2000).  
 통계청(2001).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 사업보고서.  
 하버마스 저(1981), 서규환(1995) 역. 소통행위론. 서울: 의암출판  
 홍형욱(1992). 한국 住居史. 서울: 민음사.  
 홍형욱(2005). 근대 이후 한국주거의 미시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79-92.  
 홍형욱(2001).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47-166.  
 홍형욱, 이경희, 최정신, 김대년, 조재순, 권오정(2004). 노후에는 어디에서 살까. 서울: 지식마당.  
 홍형욱, 지은영(2004).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견해의 지역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2(7), 1-17.  
 A. H. 새비지 저(1895)/신복룡, 장우영 역주(1999),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서울: 집문당.  
 Koreanity.com.  
 (2006년 5월 8일 접수, 2006년 7월 7일 채택)